

세상을 알린 정보... 세상을 바꾼 특집

광주일보 대표 연재물·칼럼

‘호남 언론의 종가’ 광주일보의 2만번의 발걸음은 겹겹마다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유익했다. 4·19와 5·18 등 한국현대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섰으며,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양과 지식, 문화를 살피우는 유익한 읽을거리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광주일보 지령 2만호를 되돌아보며 기획시리즈와 칼럼, 연재물들을 정리해본다.

◇한국 현대사 바로세우기=4·19가 발생한 지 41일만인 1960년 4월23일부터 광주에서의 4·19 전개과정과 뒷얘기들을 상세히 기록한 ‘光州학생 4·19 발자취’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으로 검열이 엄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감수한 과감하고 발 빠른 기획이었다.

1973년 9월1일부터 75년 8월15일까지 2년간 무려 553회에 걸친 대하 연재물인 ‘광복 30년’은 한국 신문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연재로 평가받았다.

이어 75년 12월1일부터 대형 역사기획물인 ‘義兵列傳(의병열전)’을 77년 7월21일까지 439회에 걸쳐 거의 매일 연재했다. ‘임란 호남의병 역할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하며, 제10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 견인=다도해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 ‘섬·섬사람’을 산업화·근대화의 사각지대인 섬의 모든 것을 해부해 전남의 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1971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50회 연재한 이 기획물은 제7회 한국신문상 편집상을 받았다.

언론통폐합 조치로 광주일보 탄생 후 첫 대형 기획연재물인 ‘築山江을 살리자(45회)’는 제5공화국 들어 심리적 절망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영산강 개발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농업혁명(1992년·35회)과 UR이긴다(1995년·22회)·바다경영시대(1995년·31회)·전남살을 한국대표 브랜드로(2004년·50회), 우주시대(2002년·20회)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재물을 제시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다문화사회’ 시리즈를 전개해 사회 흐름을 주도했다.

이 시리즈는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으로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10·1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2011년 한국신문상 등 7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광주·전남 대해부(2010년), 세계장조의 도시를 가다(2011년), 영산강 셋강 살리기(2012년)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에는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은폐 의혹’을 보도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문화·예술의 향기=‘南道唱(1973년·26회)’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했던 남도 판소리를 정리해 학계·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千年伽藍’은 1987년부터 4년간 140회를 주간 연



1975년부터 439회에 걸쳐 임진왜란 호남의병의 활약을 소개한 ‘의병열전’.



2007년부터 4년간 게재된 다문화 시리즈 중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역사를 되짚은 ‘광복 30년’ 553회·‘의병열전’ 439회

미술·역사·종교 등 교양을 넓혀준 문화·예술 시리즈

시대를 꼬집고 독자의 가려운 곳 긁어준 다양한 칼럼

재한 광주일보 사상 최초의 전문 종교물이다. 500여 전남 사찰 대부분을 역사적·학문적·문화재적으로 정리하는 등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을 풀어나간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백제의 숨결’은 1987년부터 2년간 66회 연재한 본격 역사탐구시리즈다. 축소·왜곡된 백제사를 바로잡았으며, 국내에 백제사 재조명의 불을 일으켰다.

‘올림피아드 기행’, ‘프랑스 혁명 200돌’, ‘황하-문명의 발상지 어제와 오늘’, ‘유라시아 철도를 가다’, ‘차이나 리포트’ 등 해외 기획 취재물도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2012년 4월19일부터 창사 60주년 대기획으로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 기획은 중앙아시아·인도·중동·인도차이나 등 9개 방면 14개국을 도는 대장정이다.

2012년 9월13일 폴 세잔의 작품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만나는 ‘김은영의 그림생각’은 11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며 교양과 예술상식을 넓혀주고 있다.

◇시대 꼬집는 명코너들=정치·경제·문화·역사를 망라한 수준 높은 칼럼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혔다.

1955년 창업자인 김남중 회장의 칼럼 ‘시시비비’를 시작으로 ‘최승호 칼럼-살며 생각하며’, ‘조동수

칼럼’ 등은 독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던져줬다.

광주일보 지령 2호부터 등장한 ‘무등고’, ‘금남로에서’ ‘데스크시각’은 논설위원과 부장들의 날카로운 면서도 중후한 시각이 돋보이는 칼럼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 춘추6개사가 함께 연재하는 ‘광일춘추’와 ‘월요광장’은 지면을 통한 지식인들의 담론장이 됐다. 주요 필진은 황우석·강지원·강만길·유시민·박원순·북거늘·고원정·이외수·이시형·공병호씨 등이었다.

2013년부터 2년간 매주 수요일 독자를 만났던 문순태 칼럼과 한승원 칼럼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전 직원에게 정독을 권유했을 정도로 명칼럼이었다. 문순태·한승원 칼럼에 이어 이달부터는 신형철·함정임 칼럼을 선보이고 있다.

임철우·한승원·고은·김원일·김주영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소설을 연재,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소설을 읽기 위해 신문을 구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사냥꾼 이야기’도 광주일보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다.

창간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쌍나팔’,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만날 수 있는 ‘기자수첩’, ‘잠망경’, ‘현장과 시각’ 등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독자 만나기까지 매일 마감전쟁 을곤은 보도 위해 긴장 또 긴장

편집국 24시



06:00

간밤 사건사고 취재

동창이 밝아오는 새벽, 천근만근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눈가에 뭉친 눈곱을 대충 땀 뒤 경찰서로 발 걸음을 옮긴다. 이동 중 소방서에 전화해 화재와 응급 상황을 체크한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형사과, 교통조사계, 수사과, 정보과를 차례로 돌며 ‘밤새 안녕’ 했는지를 확인한다. 간 밤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부부의 날’ 일을 마친 아내를 태운 80대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 노부부가 함께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다.

보고·평가·반성

사건사고 중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간추려 캡(사건탐정)에게 보고한다. 캡은 보고한 사건사고를 다시 가려내 데스크(사회부장)에 보고하고 기사 작성을 지시한다.

같은 시각, 편집국장을 비롯해 3명의 부국장, 8명의 데스크는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를 뒤적이고 있다.

‘물(경쟁사에서 특종보도를 하고 우리는 누락한 경우)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종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물을 먹었을 때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부장, 도대체 뭐 한 거야. 애들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보고해...” 국장의 불호령은 부장→캡→기자에게 강도를 더하며 전달된다. 이 때문에 오전 9시 이전 회사나 국장·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긴장하게 된다.



11:00

1차 제작 회의

각 기자들이 보고한 기사를 토대로 데스크회의가 열린다.

‘물을 먹은 기사’에 대한 성도의 장이자 ‘오늘의 메뉴’를 정하는 회의다. 한 데스크는 “시험을 본 뒤 다음날 점수를 받는 시간으로, 하루 일과 중 가장 괴롭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면 데스크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게 취재 지시를 일제히 하달한다.



15:00

최종 제작회의

다시 데스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광주일보에 오를 메뉴를 최종 확정하는 회의다. 앞서 기자들은 오후 2시30분까지 취재한 ‘팩트’를 ‘임팩트’ 있게 데스크에 보고해야 한다. 데스크들은 보고된 기사의 중요도와 가치, 시의성 등을 따져 광주일보 1면을 장식할 톱 기사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문화·지역면 등 면별 성격에 따라 기사를 배치한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경쟁한다면, 데스크들은 이 때 ‘1면 톱’을 놓고 경쟁한다. 여기에서 지면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17:00

기사 마감·편집

‘히스테리’한 자명종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데드라인(마감시간)이다. 이시간이 다가오면 편집국은 전쟁터가 된다.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편집부, 새로운 기사를 한 쪽이라도 더 넣으려는 외근부서 데스크 사이에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다. “기사 안 보내”, “다 됐어, 1분만...” 좁은 시작되는 대화는 가끔 큰 소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전에 취재기자들의 시간이었다면, 이후부터 편집기자들의 시간이다. 편집기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눌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빠진다. 담당 면에 배치된 기사를 읽고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뒤 제목을 달고, 기사 가치에 따라 레이아웃을 그려간다. 지면 편집을 완료하면 편집부장→부국장→국장 순으로 지면 데스크를 한다. 국장의 최종 OK 사인이 나면 어느새 망거미가 질게 내린 저녁 8시다.



20:00

인쇄→발송

편집국은 당직 체제로 전환되고, 대신 출판부와 발송부가 바빠진다. 편집기자가 지면 편집을 완료한 뒤 내부 서버를 통해 출판부로 필름을 전송하면, 출판부는 이를 출력해 신문지면에 맞게 위치를 잡은 뒤 윤전기에 장착할 PS판(presensitized plate) 작업을 한다. 24개 면의 PS판을 시간당 20만부를 찍어내는 대형윤전기에 걸어 인쇄에 들어간다. 고속으로 인쇄된 신문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돌며 비닐포장까지 마친 뒤 발송차량에 실린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손을 거친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전북·서울 등으로 뻗어가 독자를 만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000

합리적인 설계, 탄탄한 시공으로
신뢰와 행복이 있는 기업!

토목설계 / 각종 인·허가

(주)진성 | 광주시 서구 풍암동 908-5 (2층)
Tel. (062)261-2272

(유)신성산업개발 |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 12번길 19(치평동)
Tel. (062)373-9891